

구역:

이름:

<p>7월 1 월요일</p>	<p>이사야 31 장-36 장 □ (핵심장 35 장) □</p>	<p>* 너희는 여호와를 구하라: 당시 국제정세는 험악했습니다. 유다의 운명은 풍전등화였고, 유다의 주변 국가들은 앗수르와 애굽과 같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앗수르는 칼에 엮드러질 것이며,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칼이 그들 위에 내렸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강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앗수르의 대군이 유다 전역을 침공하고 결국 예루살렘까지 포위하기에 이릅니다. 앗수르 사람 랍사게는 유다의 하나님도 자신들에게 무릎 꿇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치며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요?</p>
<p>문제</p>	<p>“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p>	
<p>7월 2 화요일</p>	<p>이사야 37 장-42 장 □ (핵심장 40 장) □</p>	<p>*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풍전등화와 같았던 예루살렘의 운명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으며 앗수르가 하나님을 비웃은 것에 분노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앗수르의 진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룻밤 새에 앗수르 병사들을 예루살렘에서 물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찾아온 외교사절들 앞에서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크고 위대하시며,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을 보내셔서 백성을 회복하시고 이방에 정의를 베푸실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p>
<p>문제</p>	<p>“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p>	
<p>7월 3 수요일</p>	<p>이사야 43 장-48 장 □ (핵심장 43 장) □</p>	<p>*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는 40 장을 기점으로 메시지의 전환을 맞이합니다. 39 장까지는 심판과 꾸짖음이 주된 내용이었지만, 40 장부터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핵심이 됩니다. 그러나 40 장 이후의 메시지들이 전부 위로와 회복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을 향한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그들의 죄를 강력하게 고발하며 심판을 선언하는 43 장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44:6)라고 계속해서 선언하시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45 장에서는 고레스를 들어 쓰실 것임을 선언하시고, 46 장에서는 바벨론의 신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급기야 47 장에서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예언이 전부 실현됩니다.</p>
<p>문제</p>	<p>“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가 없느니라”</p>	

